

지상파까지 트로트... “지겹다” vs “재밌다”



SBS TV '트롯신이 떴다'



MBC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예능 쏠림 현상 방송계 고질 지나치면 인기 쏠아질 것

지난해 TV조선 '미스트롯'에서 비롯한 트로트 열풍이 지상파까지 옮겨가며 예능가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과거 육아, 쿡방, 아이돌 서바이벌처럼 특정 소재 예능이 성공하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데 대해 시청자들은 지겹다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트렌드에 민감한 예능 특성상 인기 아이템을 따라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MBC TV 예능 '편애중계'

지난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첫 방송된 SBS TV '트롯신이 떴다'는 9.2%~14.9%를 기록했다.

바로 지난주까지 같은 시간대에 방송한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가 평균 시청률 3%대에 머물렀다는 것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시청률은 트로트라는 소재의 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롯신이 떴다'는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 남진, 김연자, 주현미, 설운도, 진성, 장윤정이 모여 해외에서 트로트 버스를 펼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트로트를 소재로 삼은 예능으로는 지

난달 종영한 MBN '트로트퀸', MBC에브리원의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히트하면 같은 소재의 후발주자가 여럿 탄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2014년 쿡방 원조격이라고 할 JTBC '냉장고를 부탁해'가 히트하자 비슷한 프로그램이 지상파, 종편, 케이블 할 것 없이 쏟아졌다.

CJ ENM 산하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즌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KBS 2 TV '더 유닛', MBC TV '언더나인틴',

JTBC '믹스나인' 등이 생겨났다.

시청자들은 대체로 예능계에 굳어진 '따라하기'가 '지겹다'는 반응이다. '트롯신이 떴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술가락 얻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쿡방 때 방송 경험이 있는 셰프가 여러 프로그램에 동시 출연하며 셀러브리티가 된 것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겉치기 출연'에도 시청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트롯신이 떴다'에 출연하는 장윤정은 TV조선 '미스터트롯'의 마스터로 참여

하고 남진, 주현미, 설운도는 '미스터트롯'의 레전드 미션 특별 심사위원이다.

한 지상파 예능 관계자는 "과거에 아이템을 따라 했다고 비판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대놓고 따라하기는 저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렌디한 예능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유행을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트로트는 중장년층 음악이라 시청률을 올리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일례로 MBC TV 예능 '편애중계'는 평소 2%대 시청률에 머물다가 '트로트신동'을 다룬 지난달 28일엔 무려 6.2%로 뛰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하나가 인기 있으면 그쪽으로 쏠려가게 우리나라 방송계 고질이다. 시청률 '전쟁'을 치르는 방송사로서는 이 좋은 소재를 방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역사가 오래된 트로트 장르 특성상 트로트 예능 인기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식상해져서 오히려 유행이 짧아질 수 있다. 방송사들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 일본 매출 40억엔 돌파

영국선 외국어영화 역대 1위 전세계 3천억원 돌파 눈앞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일본에서 누적 매출 40억엔을 돌파했다.

9일 CJ ENM에 따르면 '기생충'은 일본에서 8일 기준 40억4716만엔(47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전 1위인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30억엔)를 훌쩍 뛰어넘는 최다 흥행 기록이다.

일본 영화 전문사이트 에이가닷컴(eiga.com)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기생충'은 지난 주말(7~8일)에는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했다.

한국영화가 일본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것도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27일 3개관에서 먼저 선보인 '기생충'은 올해 1월 10일 일본 전역에 확대 개봉했다. 개봉 초기 5위로 출발했으나, 지난달 10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휩쓸기에는 입소문을 타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

다. '기생충'은 영국에서도 역대 외국어 영화 최고 흥행 성적을 올렸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이달 6일까지 1108만8149파운드(약 174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기존 외국어 영화 최고 흥행작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1107만8861파운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약 5281만달러(634억원)의 수익을 냈다.

역대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가운데 '기생충'보다 많은 매출을 올린 작품은 '와호장룡'(1억2810만달러), '인생은 아름다워'(5720만달러), '영웅'(5370만달러) 세 작품뿐으로, '영웅'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등을 모두 합친 전 세계 수익은 2억4590만달러(2953억원)에 이른다.

한편 '기생충' 출연 여배우들과 이미경 CJ 부회장은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세계여성들의날을 맞아 선정한 영화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들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SBS '굿캐스팅' 최강희·이상엽 등 주연

다음달 27일부터 방송

배우 최강희와 이상엽 주연의 SBS TV 새 월화드라마 '굿캐스팅'이 다음달 27일부터 방송된다.

'굿캐스팅'은 국정원 현직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현장 요원으로 차출된 후 위장 잡임 작전을 펼치는 액션 휴머니즘 블록버스터다.

최강희는 교도소 내 위장 잡임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 요원 백찬미로 분한다. 이상엽은 과거 첫사랑에게 차인 트라우마를 지닌 미남 회사 대표 윤석호 역을 맡았다.

유인영과 김지영은 최강희와 함께 한국판 '미녀삼총사'로 변신한다. 드라마는



최강희

이상엽

이들이 의기투합해 걸크리시 액션을 선보이는 모습을 담는다.

드라마는 이준영, 이종혁 등도 출연하며 박지하 작가가 대본을 쓰고 최영훈 PD가 연출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유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뉴스특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실컷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고립낙원(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카DS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내고향 전파 스페셜 55 특목 보험설계
1	00 시사 직격(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뉴스브리핑
3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유태리필 셀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정재영의 이슈IN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기리끼리 스페셜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고립낙원		
11	05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영화가 좋다(재)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12	00 바다 건너 사랑(재) 50 KBS 결탁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KBS 중계식(재)	0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0 나이트 라인 50 네오세도(재)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망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푸드 트립 스페인
09:30 윈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삶의 향기, 자연의 맛>
09:40 아웅망명 귀여워2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패파 피그(재)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2부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치약산 하늘 아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건축탐구 - 집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0일(음2월 16일 壬子) ☎ 010-9790-8237

<p>36년생 한 시름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말라. 48년생 양 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60년생 밤잠만들면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생길 수다. 72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84년생 함세 해아 풀리칠 수 있느니라. 96년생 대강 어림잡아도 틀림없을 것이니 속도를 내자.</p> <p>행운의 숫자 : 44, 68</p>	<p>42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54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용하고 있으나. 66년생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78년생 진 부함을 벗어나려는 파격이 요청된다. 90년생 밤잠만들고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02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함이 맞다.</p> <p>행운의 숫자 : 31, 84</p>
<p>37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혹스러워하는 형세이다. 49년생 깊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61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73년생 해안이 절실하다. 85년생 관행만을 앞세우다면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97년생 대안신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12, 85</p>	<p>31년생 허울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차리는 것이 이적이다. 43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5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67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79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91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 번 나은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37, 74</p>
<p>38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50년생 일일이 확인해 보라. 62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4년생 서로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해 보자. 86년생 귀에 거슬릴지 언젠가 살아 돌아오는 충고이니라. 98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p> <p>행운의 숫자 : 68, 98</p>	<p>32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44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강풍이 불 것이니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8년생 숨고 숨고 하면서 속고해 받다면 여지는 없다. 80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92년생 살펴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p> <p>행운의 숫자 : 34, 64</p>
<p>39년생 나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51년생 긴급한 비상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63년생 검증 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75년생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87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99년생 하자기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36, 55</p>	<p>33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45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57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69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81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93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p> <p>행운의 숫자 : 04, 61</p>
<p>40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휘황할 수 있는 법이다. 52년생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64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나 잘 활용해 보아라. 76년생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88년생 마음만으로는 유한하니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00년생 깊이 있게 관찰하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15, 59</p>	<p>34년생 소신껏 처리하라. 46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58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0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82년생 살펴보면 현실이 드러나리라. 94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09, 73</p>
<p>41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53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65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77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89년생 뜻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무탈하다. 0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p> <p>행운의 숫자 : 38, 90</p>	<p>35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47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71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말릴 작업이 활발하다. 95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라.</p> <p>행운의 숫자 : 16, 71</p>